

한인연합감리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보고서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Comprehensive Study Task Force Report

부흥과 성장을 위한 특별위원회

(한인연합감리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Comprehensive Study Task Force)

KUMC 부흥과 성장 특별위원회

이승우 목사 (워싱턴 감리교회)

김정호 목사 (아틀란타 한인교회)

장학순 목사 (한인목회강화위원회 총무)

KUMC 전국연합회 임원

회장: 김광진 목사

부회장: 이훈경 목사, 김문숙 목사, 양승길 장로

총무: 이성현 목사

협동총무: 림학춘 목사

서기: 이창민 목사

회계: 이성호 목사

상임위원

이승우 목사 (정책)

한상신 목사 (선교)

이성철 목사 (목회)

김정호 목사 (교단)

지역회장

이재덕 목사 (동북부)

신용철 목사 (동남부)

곽한두 목사 (중북부)

엄준노 목사 (중남부)

김의웅 목사 (서부)

목 차

1. 연구의 필요성과 문제제기	p. 3
2. 부흥과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가) 지도력개발	p. 6
나) 교단관계와 조직 및 제도	p. 9
다) 교회개혁과 활성화	p. 13
3. 특별위원회 경과보고	p. 16
4. 2005년도 전국연합회 부흥과 성장 주제 발표	
가) 연합감리교 현황과 문제분석	p. 18
나) 부흥하는 한인교회들에게 배우는 10가지 부흥비결	p. 21
다) 한인연합감리교회 부흥과 성장의 거침돌과 디딤돌	p. 23

연구의 필요성과 문제 제기

2004년도 전국연합회 총회 이후 임원회에서 부흥과 성장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2006년도 총회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에게 위임하신 거룩한 소명을 이루기 위한 당연하고도 필요한 의도이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계속되어 오는 개체교회와 교인 감소 현상을 더 이상 이대로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에서의 발로이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연합감리교회(The United Methodist Church)안에서의 한인 목회자들의 권익은 놀라우리만큼 상승되었고, 교단 내에서 활동하는 한인 지도력도 크게 신장되었다. 또한 교단 내 한인 목회자들의 수적인 증가도 배가되었으며, 이제는 거의 300명에 가까운 한인 목회자들이 타인종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100여명의 여성목회자들이 배출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교단 안에서의 한인 공동체의 권익 신장과 목회자의 수적 증가로 인한 교단 내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단 내 목회자들의 권익 신장과 수적 증가와는 반대로 전국에 소재한 한인 개체교회의 수가 감소되었고, 개체교회의 감소와 함께 교인의 수도 감소되었다. 특별히 한인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대부분의 대도시지역에서 미주 한인 이민의 역사와 함께 오랫동안 지켜온 대표적인 한인교회로서의 한인연합감리교회 위상은 대부분 실추되었고, 각 지역의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체교회의 감소 현상은 그 수위가 매우 위험하리만큼 심각하다. 이와 같은 개체교회와 교인의 감소 현상은 다만 통계적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자아의식에도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목회자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자신감대신 자괴감을, 자신의 목회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보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목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성취감보다는 실패감을 맛보는 이들이 많이 지고 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총회에서 위임한 한인교회 부흥과 성장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집약하여 왔다.

이와 같은 개체교회와 교인 감소 현상은 물론 우리 한인교회와 교인들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며, 교단에 소속한 다른 소수민족교회들 (Ethnic Minority Congregations) 도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류 교단 내에 속한 소수민족교회의 감소 현상은 특정 교단에 한정된 문제라기 보다는 거의 일반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는데, 미국 교회 역사상 소위 주류 교단에 속한 소수민족교회가 성장한 예가 거의 드물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주류 교단에 속하여 있기는 하지만 한인교회만을 위한 독자적인 제도와 체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교회들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교회와 교인의 감소현상이 소속된 교단의 구조적인 또는 제도적인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목회자와 평신도의 지도력의 문제, 그리고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한 효율적이며 구체적인 방안의 부재 현상들이 교회 부흥과 성장을 저해하는 복합적인 요인들로 작용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부흥과 성장의 요소들을 아래 분야들로 설정하고, 오늘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안에서 이를 저해하고 있는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들은 무엇이 가능한지를 대안적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 1) 지도력(목회자와 평신도) 분야
- 2) 제도와 조직 (교단과 개체교회) 분야
- 3) 부흥과 성장 (개혁과 활성화) 분야

본 보고서는 각 분야별로 파악된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비전과 전략을 대안적으로 제안하면서, 그 모든 분석과 비판, 그리고 대안 제시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집약하려고 한다.

물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인간들의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 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부흥은 오직 말씀 선포와 기도를 통해서 구현되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자 하는 부흥의 역사에 순종하여 쓰임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잊거나 잃었던 것을 회복해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세우신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여 이 시대에 쓰임 받는 하나님 선교의 도구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찾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갱신을 이루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재활성(Revitalization)이다. 재활성이란 부흥과 갱신을 위해 성경적 원리에 근거, 건강한 교회/건강한 성도/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과정과 결과이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의 진정한 존재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감리교회의 존재목적은 “예수 제자 세우기”(To make disciples of Jesus)이다. 바꾸어서 말하자면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예수 제자 세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예수 제자 세우기”라는 단순하지만 명료하고, 또한 거룩한 부름에 순종하는 목회자/성도가 될 때 교회는 비로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순종하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에베소서 4:12) 이 사명을 회복하여 쓰임 받는 것이 갱신이요, 재활성의 관건인 것이다.

요한 웨슬레는 성서적 경건을 제시하면서, 개인적 경건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사는 은혜의 삶, 사회적 경건으로 예수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나눔/성김의 삶을 강조했다. 또 웨슬레는 개개인 삶의 자리가 사회적 정황과 만나는 은혜/나눔/성김의 삶을 마침내 살아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 거룩한 사명이 바로 감리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웅변한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소망은 예수 생명과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에게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부흥과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소망이 있다는 확신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본 위원회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꿈으로 깨어나 한인연합감리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부흥의 비전을 함께 확신하고,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강건하게 세울 팀이 되자는 것이다.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아름답게 쓰시는 교회로 거듭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꿈으로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우리는 거룩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거룩한 변화를 주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헌신이다. 헌신과 더불어 열정과 함께 일할 믿음의 동지들을 세우고 이 과정을 소망의 인내로 견뎌내야 한다.

본 위원회가 제시하는 부흥과 성장에 대한 제언은 대안임을 밝혀둔다. 즉, 본 보고서는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함께 생각과 뜻을 모으려는 간절한 호소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야 한다. 감리교회가 감리교회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connectional church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연결은 부흥과 성장을 가져오는 연결이어야 한다. 과연 오늘날 한인연합감리교회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냉철하게 보아야 한다. 진정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연합감리교회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현재 교인과 교회감소의 심각한 현실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이 문제들이 해결됨으로써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일으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부흥의 역사에 우리가 다시 순종하여 쓰임 받아 일어날 때 우리가 속한 교단인, 연합감리교회도 다시 하나님 부흥의 역사에 크게 쓰임 받는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는다.

본 위원회에 주어진 연구의 범위와 한계는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관한 내용이다. 바로 이 권한과 한계의 범주 안에서 연구된 것이 본 보고서의 내용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연합감리교회에 소속한 모든 한인목회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제안이나, 교회에서 있어야 할 일반적 요소들, 예를 들면 포용성(Inclusiveness) 등을 위한 것보다는 한인 개체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란 의제에 그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둔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이와 같은 한인 개체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한인목회자들의 권익 보호와 발전은 물론 우리 교단 전체의 부흥과 성장에 밑거름이 되고 촉매제가 될 것을 믿으며 또한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에 임한 것을 밝혀둔다.

지도력 개발 비전과 전략

개체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곧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력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력과 관계는 중요하며, 이를 위한 지도력 개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지도력에는 교회에 파송을 받아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 지도력(Pastoral Leadership)과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지도력(Lay Leadership)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두 지도력의 상호 협력과 보완이야말로 개체 교회 부흥과 성장의 핵심이라고 보고, 현재 한인연합감리교회안의 목회자 지도력과 평신도 지도력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목회자 지도력(Pastoral Leadership)

목회자 지도력의 문제

그동안 한인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목회 지도력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요인들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1. 미국 내 신학교의 한인목회를 위한 커리큘럼의 부족
2. 한국에서 훈련된 목회자들의 미국 문화와 이민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3. 이민 목회를 위한 구체적인 경험과 전문적인 목회 자료의 미흡
4. 교회 성장과 부흥에 대한 신학적 이해의 편견
5. 목회자의 정체성이 소명직(Calling Model)에서 전문직(Professional Model)로의 변화
6. 목회자를 위한 권익 신장에 비해 목회에 대한 열정 저하
7. 교회 부흥과 성장에 대한 획일적인 지도력 모델 제시

위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빚어진 현 목회자 지도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래의 방안들을 제안한다.

1. 목회자의 소명의식 회복

교단이라는 조직과 체제 속에서의 목회는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에 대한 소명의식(Call Model)보다는 전문직(Professional Model)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게 되는바, 소명의식의 결여 혹은 부족한 상황에서의 목회자의 권익에 대한 배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 대한 열정보다는 교회를 통한 목회자 자신에 대한 관심이 앞설 수 있다. 또한 반복되는 목회 사역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 영성이 해이해 질 수 있다.

이에 목회와 목회자를 위한 기본적인고도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그리고 역사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한 실천 사항으로는 성경적 목회론이나 목회 신학,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의 영성에 대한 신학적, 역사적 이해를 돕기 위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강사로 강좌를 마련한다.

2. 목회자학교 개설

효율적인 한인목회를 위해 목회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목회자 학교를 개설하여, 한인 교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이민 목회를 위한 구체적인 목회 방안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경험을 나눔으로 배움의 기회를 갖게 한다.

목회자학교는 아래의 몇 과정으로 구별하여 운영한다.

- 1) 한인목회를 지망하는 신학생(목회후보자) 과정
- 2) 타인종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중 한인교회 목회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과정
- 3) 목회경력 3년 이상 되는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 클리닉 과정

3. 한인 목회 인턴 과정 실시

한인목회를 지망하는 목회후보자로 하여금 목회 일선에 나가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건강한 교회와 목회자의 지도하에 인턴 과정을 수료하게 해 목회 실무에 관한 전반적인 경험을 쌓게 한다. 이를 위해 지원자 선발 요항과 대상 교회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 요강을 마련한다.

- 1) 단기 목회 인턴 과정 (10 주)
- 2) 장기 목회 인턴 과정 (1 년)

4. 한인 목회를 위한 컨설팅 팀 구성

목회 각 분야별로 경험이 많은 목회자를 비롯한 전문가들로 목회 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개체교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목회 사안에 대해 맞춤형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평신도 지도력 (Lay Leadership)

평신도 지도력의 문제

그동안 다른 어느 교단보다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평신도들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평신도 지도력의 중요성, 그리고 교회에서의 평신도들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여 왔고,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교단 내 각 계층별 구조와 개체교회의 구조 안에서의 평신도 지도력에 대한 비중은 목회자의 지도력에 비해 크게 신장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신도의 역할의 중요성과 지도력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에 비해 평신도들로 하여금 개체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역 훈련이 부족하여 급기야는 평신도들의 교단과 개체 교회에서의 정치적 지도력이 크게 확대된 것에 비해 개체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서의 그 역할은 미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실시한 평신도 사역 훈련도 행사성으로 치러졌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몇 차례 개최된 개체교회에서의 평신도 사역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도 특정 교회를 모델로 실시하므로 모델교회와 다른 규모나 구조의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들에게는 모델교회와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비교하게 하는 역기능적인 요소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1. 평신도 사역자 학교 개설

평신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사역중 구체적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개체교회 사역의 각 분야별로 과정(예, 선교학교, 전도학교, 심방학교, 교사학교 등)을 개설해 이를 이수하게 한 이들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한인연합감리교회 내에서 공인된 평신도 사역자로 인정한다. 이 사역자 학교의 각 과정에 과정마다의 커리큘럼은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한다.

2. 여성 지도력 개발

개체교회 평신도 지도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교인들을 위한 지도력 개발을 위해 현행 실시되고 있는 여성교회 선교학교(School of Mission)와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여 참여하도록 권유한다.

3. 평신도 직제 운영 통일

현실적으로 이민교회가 겪는 분규의 큰 원인중의 하나가 평신도 직분자 인선이다. 이와 같은 직분자 인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인선을 위한 규범에서 비롯된다. 각 개체교회마다 제각기 다른 규정을 가지고 인선 과정을 치르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들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연합회 차원에서 이미 마련된 평신도직제 운영 가이드를 보완하여 통일된 규범을 제정하고, 각 회원교회에서는 전국연합회 총회에서 채택된 규정을 준수하여, 통일된 규정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도록 하게 한다. 아울러 평신도 직분자들을 훈련하는 교재 개발(제자훈련부 주도)을 적극 협력한다.

4. 전문직 평신도 신앙 운동 전개

현재 개체교회 평신도 지도력 중에서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평신도들이 격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직 평신도 감소 현상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요인들로 인해 일어나고 있다.

- 1) 20년 전부터 시작된 북미유학생수양회(KOSTA)의 영향 - 특정 교단과만 연계된 전문직 평신도 운동으로 인해 우리 교단과의 네트워크 부재 현상 초래
- 2) 개체교회 평신도 지도력의 정치화 현상으로 인해 교단과 개체교회 정치에 관심이 없는 평신도들의 참여 저조
- 3) 사회에서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지 교회에서 겸손한 이들을 바람직한 평신도상으로 정립하므로 인해 전문성을 통한 하나님 사역 제한

이에 범 교단적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평신도들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여 이들을 훈련하고, 자신들의 전문성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한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중북부지역에서 발의가 되어 현재는 전국 규모로 개최되고 있는 “학원선교지도자대회”와 작년부턴 워싱턴지역에서 시작된 “한인기독교과학자대회”와 같은 사역들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교단 내 각 전문직종별 평신도 지도자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교단과의 관계 그리고 조직 및 제도 분야

연합감리교회 최고 입법 의결기구인 총회 (General Conference)는 한인 교회들의 청원을 수용, 한인 선교와 목회를 효율적으로 후원하기 위한 ‘한인 선교구’ 및 ‘한인목회강화 협의회’ 등 두 공식기구의 설립을 인준한 바 있다.

1. 한인 선교구

한인 선교구는 1984년에 설립된 이래 그동안 꾸준히 한인교회 개척사역을 통해 명실공히 한인선교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단적 관심의 미비, 지역총회 및 해당 연회와의 연계성 저하, 반영구화된 여러 미자립 선교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본래의 정체성과 고유 기능이 약화돼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1)해당 연회와의 연대성 강화, 2)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회개척, 3)선교교회 지원업무를 위한 전국적인 선교구로서의 포괄적 재편성 등을 제안 할 수 있겠다. 아울러 4)현존하는 선교교회 중 성장 가능성이 낮은 선교교회에 대한 과감한 정리작업, 5)새로운 교회 개척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한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고려할 것, 6)소명이 투철한 우수한 사역자를 선정해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등 의도적인 정책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2. 한인목회강화 협의회

2000년 총회를 통해 설립된 후, 2004년부터 두 번째 회기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중인 한인목회 강화협의회는 한인교회와 관련된 다양한 사역의 활성화 및 한인교회개척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목회강화협의회 역시 한인교회 목회를 강화하기 위한 기구라는 설립 당시의 정체성이 다소 약화된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협의회의 회원 구성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지나친 산술적 평균분배의 원칙을 지키려는 의도로 인해 한인교회의 중요성이 저하되었으며, 한인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안배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극복하는 해결책으로는 본래의 설립목적에 충실하여 1)한인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집약적 예산집행, 2)한인 차세대 목회자의 지도력 개발, 3)영어권 차세대 목회지원 등을 우선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겠다. 매년 증가해 가는 전국의 다양한 한인관련 사역에 대한 분배식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4)교회개척이나 소그룹 사역 등 몇가지 전략적 우선사업을 책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제안한다.

3. 전국연합회

한인 연합감리교회를 대표하는 유일한 전국적 이익단체 (코커스)인 전국연합회는 친목 단체가 아닌 명실상부한 전체 한인공동체를 대표하는 이익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 한인연회가 없는 현 상황에서 한인교회의 성장을 주도하는 프로그램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야 된다고 본다.

회원의 권리주장과 더불어 1)자격과 의무 이행의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장정이 개정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며, 2)연합감리교 안에 존재하고 발전해가는 다양한 한인 관련단체와 연대기관을 아우르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기능도 회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3)중앙위원회의 활성화, 4)임원회 안에 상임/ 전문위원회 제도의 신설을 제안하고 싶다.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연대사역 기관들의 출현으로 인해 한인 개체교회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며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 문제로 개체교회와 한인 목회강화협의회와 같은 기관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5)연대기관들의 협의 .통로 일원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국연합회가 이를 맡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이다.

4. 한인연회 청원 가능성

제도와 구조문제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점은 1996년 총회(General Conference) 당시 청원했다가 좌절된 한인연회에 대한 문제다. 한인교회를 위한 교단적 조직 (한인연회)의 부재로 한인교회의 성장을 위한 협력과 지원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인연회의 설립을 위한 청원을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전국연합회와 한인선교구, 한인목회 강화협의회가 공동으로 2008년 총회에 한인연회 설립을 청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볼 것을 제안한다.

5. 파송제도

연합감리교회의 운영제도 가운데 개체교회에 가장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두 가지 제도는 파송제도와 분담금제도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이 두 가지 제도는 개체교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한인교회의 이해가 부족해 연회와의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먼저 파송제도의 경우 아직도 전반적으로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1)목회자와 평신도 특별히 목회협조위원들을 대상으로 파송제도에 대한 꾸준한 설명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많은 연회의 경우 효율적인 순회파송을 위한 한인교역자의 절대수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2)연회간 파송제도(Cross Conference Appointment)를 정착화 (지역총회 별 감독/감리사/한인목회자 대표로 구성)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3)전국적인 한인목회 사역자의 ‘데이터 베이스’의 운영 (공보국과 전국연합회)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다. 파송시에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목회자와 교회 그리고 연회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4)한인교회가 집중되어 있는 지방의 감리사들에게 한인교회와 한국문화를 더욱 밀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5)연회 별로 한인목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6. 분담금제도

분담금 제도는 전체 연합감리교회의 선교에 개체교회와 교인들이 재정적으로 참여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교세의 위축과 정체로 인한 과중한 분담금 책정으로 인해 많은 경우 개체교회의 사역 위축과 미납 현상을 초래하는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데 대한 개선책으로 1) 분담금의 사용처와 그 중요성에 대한 꾸준한 홍보, 2) 분담금의 일정부분에 한하여 지정헌금제도 활용을 통한 개체교회의 자율성 선정, 3) 비현실적인 분담금 책정을 막고 현실적인 부담이 가능한 적정선의 분담금 책정을 위한 연회와의 사전 교섭을 추진할 수 있는 유연성의 필요하다 하겠다. 한인교회의 경우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는 많은 대외 선교비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교비 지원창구를 세계 선교부로 일원화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연회와 교단과의 대화를 통해 4)세계 선교부를 통해 지출되는 대외 선교비에 대해서는 이미 책정된 분담금에서 일정액을 면제 (credit)해 주는 방법도 제안하고 싶다.

I. 교단 관계 분야

분 야	문제 제기	제 안	준 비	협 력
한인선교구	한인 선교를 위한 교단 주도적 조직으로서의 정체성 약화	1984년 총회에서 결의된 한인 선교구 설립 목적 재 확인 및 현행 조직 사역 평가. National Mission Structure로 발전적 운영	1984년 총회 결의와 각 지역 총회 별 한인 선교구 운영 규범 조사	한인 선교구
	한인선교구에 대한 교단적 관심과 지원 저하로 인한 교회개척 미비	각 지역별 해당 연회와 연대 강화	교단의 한인선교구 선교비 지원 현황 파악 개척 교회별 연회 관계 현황 파악	각 지역총회/ 해당연회
	개척된 교회 중 미지립 장기화로 인한 교회 개척에 대한 부정적 시각 확산	기존 개척교회 현황 파악 및 대안 마련	교회 존립에 관한 판단, 존립 필요 교회를 위한 자매결연 후원	한인선교구
한인 목회 강화 협의회	한인목회 강화협의회의 본래적 정체성의 약화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출범의 역사적 배경과 2000년 총회에서 채택된 정체성 확인	2000년 총회 결의안과 1차총회 년도(2000-2004) 사업내역 평가 2004년 총회 결의안 재확인	한인목회강화협의회
	평균분배 중심의 협의회 조직으로 인한 한인교회 대표성 저하	한인교회 대표성 확대 방안 모색/ 전국연합회 대표 증가 요청	전국연합회 추천 위원(3명)을 추가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연대기관별 평균적 분배 위주의 예산 집행과 기존 사역에 대한 추가적 지원으로 인한 본래적인 교회 개척과 성장을 위한 지원 약화	한인교회를 위한 차세대 지도력 개발 강조 평균 분배식 예산집행 방식에서 부흥과 성장을 위한 집약적 예산 집행으로 변화, Monitoring System	각 분과 위원회별 예산집행 우선 순위 결정 (한인밀집 지역을 위한 개척 지원, 지역 별로 정제된 대표적 교회 활성화 집중 지원)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지원한 개인/교회/사역 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정한 평가 과정 결여	지출된 예산의 실질적 집행 여부 감사 연관된 총회 기관들을 통한 이중 예산 청구 여부 감사	감사제도 강화 각 총회기관별 한인목회 연관 예산 청구 및 집행 현황 조사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총회기관
파송제도	파송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파송제도에 대한 각 교회 SPRC 위원 교육	지역(연회)별 평신도지도자 훈련 기회를 이용한 과정 설치	해당연회/소속교회
	연회내 한인 교회와 목회자 자원 부족으로 인한 효율적인 파송 부족	Cross-Conference 파송제 정착화, 전국 목회자 Data Base 운영	OC 제도- 지역총회 별 한인 감독/ 감리사/ 한인목사대표로 구성, DB 제도- 공부부/ 전국연합회	감독회의 한인목회강화협의회
	목회자와 교회와의 갈등 해소 과정 과 방법에서 오는 문제	한인교회 소속된 지방 감리사 교육 (감리사 훈련 과정의 일환으로)	연회별 한인목회자문위원회 구성, 감독회의, 감리사 이해증진	감독회의/해당연회
분담금 제도	과중한 비율의 분담금 책정으로 인한 개체교회 사역 위축과 미납 현상 초래	개체교회 분담금 납부 계몽 분담금 사용에 대한 홍보 연회와 분담금 납부액 사전 조정	통계보고서 작성 요령 홍보 연회 분담금 사용 홍보지 발간	각 연회/해당 교회
	개체교회의 이중적 부담 - 대외선교비	대외선교 채널을 세계 선교부로 일원화 대외 선교비 일정 비율을 분담금으로 Credit	세계 선교부 안내서(한글) 제작 배부, 세계선교부를 통해 지출된 선교비에 대한 Credit	GBGM/ 해당 교회

II. 조직과 제도 분야

분 야	문제 제기	제 안	준 비	협 력
조 직	교단의 구조와 조직이 개체교회 중심에서 연회중심 체제로의 변화로 인한 개체교회 사역의 약화	개체교회 성장을 돕는 매개체로서의 교단 조직 재해석 교단의 기본단위: 연회에서 교회로	교단 내 유사 모임과의 연대	교단 내 유사단체
연대기관	한인교회를 위한 교단적 구조(연회)의 부재로 인한 한인교회 성장을 위한 효율성 저하	타 교단 내 한인교회를 위한 구조 조사 (한인노회, 한인총회) 한인선교구/전국연합회/목회강화 협의회의 공조로 한인연회 설립 연구	2008년 총회 상정 여부 연구	타교단한인목회담당자/ 한인선교구/ /한인목회강화협의회의/ 전국연합회(?)
	사업이나 사역에 따른 연대기관의 범람으로 인한 불필요한 개체교회 /교단재정자원 손실	연합사업을 위한 연대적 협의 통로의 일원화 작업-전국연합회	연대기관장 연석회의 개최 - 가능한 방안 연구	연대기관
전국연합회	창립당시의 소규모 한인 코커스로서의 연합회 정체성 지속으로 인한 제한(친목단체 또는 교단 내 이익 단체)	교단내의 한인목회와 한인교회를 위한 이익단체로서의 정체성 재정립과 함께 한인교회 성장을 위한 조직으로서의 변화	전국연합회 회칙에 명기된 연합회 목적 검토 (필요시 개정안 준비)	장정개정위원회
	회원 자격과 의무 이행 준수의 책임이 약화되고 권리와 이익의 주장이 강화된 단체로의 변화	회원의 자격, 회원의 의무와 권리 준수 이행 강화 - 정체성 강화를 위한 회칙 개정	2006년 디트로이트 총회에 회칙 개정안 상정 준비	장정개정위원회
	한인전체를 위한 포괄적 조직체로서의 정체성으로 인한 한인교회 성장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 부족	한인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조직으로서의 제도 강화	중앙위원회 제도 활용 임원회내 상임/전문위원회 구성	중앙위원회 전문상임위원

교회 개척과 활성화 비전과 전략

-부흥과 성장지향적인 신학과 문화 조성의 필요

한인연합감리교회 목회자는 물론 평신도 지도자들이 지적하는 교회 부흥과 성장에 있어서의 문제는 교회부흥에 대한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신학적 해석으로 인한 교회부흥과 성장에 관한 부정적인 문화적 토양과 견해이다.

물론 양적인 성장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양적인 성장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이 질적인 성장을 했느냐 하는 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교회 성장과 부흥에 대한 부정적 문화와 신학적 입장과 함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는 개체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주도적 위치와 권한이 그 교회를 사역하는 목회자들이어야 하는데, 우리 교단은 이러한 교회개척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의 지도력보다는 교단 내 행정 책임자들이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제도적인 현실을 지적할 수 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우선적인 단위가 언제부터인지 개체교회(local Church)에서 연회(Conference)로 변형된 것도 개체 교회 성장과 부흥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단 내 문화와 신학적 해석의 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을 도모하는 지역별 목회연구모임들을 의도적으로 발족, 발전시키고, 교회성장을 위한 자료와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해석과 문화 정착을 위한 연구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 가운데 부흥과 성장을 위한 능력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발굴, 선정해서 지역별 또는 전국단위로 홍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부흥하는 모델교회 선정과 지원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한 모델 교회와 목회자를 발굴하되, 확실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보다는 각 목회지의 특성에 맞는 지역별, 규모별, 유형별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교회와 목회자를 발굴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한 교회를 선별하여 교회 성장에 필요한 자료를 나눔은 물론 서로 발전을 위한 연결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도시와 소도시 등으로 나누고, 규모별로는 대형교회, 중형교회와 소형교회로, 유형별로는 학원촌목회, 이중문화목회, 영어목회와 노인목회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부흥성장 모델을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물론 그렇게 규모나 지역별, 또는 유형별로 모델교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설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 성장한 모델 교회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목회를 소개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그 교회와 목회자들로 하여금 비슷한 유형의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부흥과 성장을 갈망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돕는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미주 내에서 한인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각 도시마다 대표성을 지닌 교회로서의 자리를 지켜온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의 정체화와 급격한 수적 감소로 인한 한인 사회 내에서의 교단과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이고,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다른 한인연합감리교회들에게도 파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정체된 개체교회를 위한 의도적인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 개척을 위한 새로운 시도

우리 교단은 개체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을 너무 신중하게 추진하는 제도와 조직을 가지고 있기에 때로 이와 같은 과정의 복잡성이 한인교회 개척의 어려움으로 부각된다.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교회 개척을 위해서는 먼저 각 지역에서 성장한 교회들이 Mother Church가

되어 개척을 주도하게 하고 이를 각 지역 한인선교구와 한인목회강화위원회, 그리고 해당연회들이 유기적으로 돕는 지원체제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교회 개척의 모교회(mother church) 역할을 감당할수 있는 교회들을 선정하고 교회 개척 가능 지역 선정 등 개척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 타진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가 또 다른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세우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동시에 해당 연회와 한인선교구는 물론 한인목회강화위원회가 파트너로 참여하는 개척 모델의 개발이 시급하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교단은 한인교회를 개척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한인교회가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아직 한인교회가 없는 지역을 선정하여 개척하는 소위 지역분배식 교회 개척을 해왔는데, 바로 이와 같은 지역분배식 교회 개척이 교회 성장의 원천적 장애 요인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지역 안배식을 탈피하고, 한인 인구가 유입되고, 이동하는 지역을 조사하여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교회 개척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도시별 최근 한인 인구 유입 현황을 조사하고, 그 도시에서 개척을 주도할 파트너 교회를 선정하여 개척을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그동안의 개척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는 한 목회자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여 온 것이 사실이며, 이와 같이 한 목회자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개척은 다양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하는 현대인들의 요구에 미흡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전통적 교회 개척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교회 개척을 위해 다양한 은사를 지닌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들로 개척 사역팀을 구성하여 교회를 개척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회 개척의 바람직한 모델은 모교회에서 개척을 전적으로 지원해서 재정뿐만이 아니라 인적자원은 물론 개척 성공을 위한 가능한 모든 지원을 감당해야 한다. 아울러 교회를 개척하려는 지역에 맞는 지도력을 갖춘 개척 목회자를 발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므로 전국적으로 목회자 데이터 베이스를 운영하여, 적절한 인사 조치를 위한 자료로 활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발굴된 목회자는 개척을 주도할 모교회에서 일정기간동안 사역을 하면서 모교회의 개척을 위한 준비 과정에 참여하는 소위 개척교회 목회자를 위한 인턴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III. 교회 개척분야

분 야	문제 제기	제 안	준 비	협 력
신학적 입장	교회부흥과 성장에 관한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신학적 해석으로 인한 교회 성장에 대한 부정적 입장	교회 부흥과 성장의 당위성 설정을 위한 신학적 입장 정립	교회성장을 위한 신학교실 개강	한인신학자
부흥과 성장	획일화된 교회 성장 모델	지역별/ 규모별/ 유형별 성장 교회와 목회자 발굴과 모델 제시 지역별 -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규모별 -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유형별 - 학원촌, 이중문화, 영어목회, 노인목회	각 유형별 모델 교회 선별 교회 성장 체험기 나눔 가능한 가이드라인 구성	UMCK, 모델교회
	각 지역 대표적 교회들 정체화로 인한 교단 이미지 실추	지역별로 정체된 교회를 위한 의도적인 부흥 성장 계획 수립과 실행	지역별 교회 선정 - 보스톤(성요한교회) 시카고(시카고제일) 뉴욕(뉴욕한인)	UMCK, 해당 교회
교회 개척	교단내 교회 개척 과정의 복잡성	지역별로 성장을 이룬 교회들의 연장사역 (expanded ministry)으로 개척을 주도하게 하고 한인선교구와 한인목회강화 협의회, 그리고 해당연회의 지원체제	지역별 Mother Church 선정, 지교회(?) 개척 가능성 타진과 구체적 계획 수립	UMCK, 한인선교구, 해당연회
	지역 분배식 교회 개척으로 인한 교회 성장의 원천적 장애	한인 인구 유입과 이동을 조사하여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집중적 교회 개척	대도시별 최근 한인 인구 유입 현황 조사	UMCK, 한인선교구
	개척 목회자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한 개척의 한계	다양한 은사를 지닌 목회자/ 평신도로 개척 사역 팀 구성 지원 Mother Church 모델 개척	모범적 개척사례 발굴 개척팀 구성	해당교회, 희망교회

한인연합감리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Comprehensive Study Task Force 경과 보고

1. 전국연합회 임원회 (6/2004, Los Angeles, CA)

2004년 5월에 있었던 제 17대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연합회 총회(Dallas, TX)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김광진 목사님에 의해 선임된 임원회에서는 회기(2004-2006)동안의 우선적인 사업으로 “한인 개체교회의 부흥과 성장”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Comprehensive Study Task Force 를 구성하여 연관된 사역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다.

2. Task Force 1 차 모임 (7/2004, Fort Lee, NJ)

임원회에서 선임된 Task Force 팀이 그 첫 모임을 뉴저지에서 갖고 향후 일정과 함께 김정호, 이승우, 장학순 목사에게 연구를 위한 초안을 마련하기로 위임하다.

3. 연대기관 대표자 연석회의 (8/2004, Flushing, NY)

연합감리교회 내 한인 연대 기관대표들을 초청하여 Task Force 에서 마련한 초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각 기관별 대표들의 관심사와 건의안을 종합하는 시간을 갖다.

4. Task Force 2 차 모임 (10/2004, Fort Lee, NJ)

연대 기관 대표자들과의 모임에서 발표한 초안과 이에 대한 각 연대기관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이를 기초로 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다. 협의회의 초청대상은 교회 규모별(소형/중형/대형)교회와 사역별(이중문화, 학원목회, 도시목회)교회에서 사역하는 담임목사들로하기로 하다.

5.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협의회 (12/2004, Ft. Lauderdale, FL)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연합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모임”을 플로리다 주 Fort Lauderdale 에서 갖고 각 규모별, 사역별로 교회를 부흥, 성장시킨 사례들을 발표하고 이를 한인연합감리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삼다.

6. 전국연합회 임원회 (1/2005, Los Angeles, CA)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KUMC Mission 2005)기간 동안 전국연합회 임원회가 모여서 2005년도 전국대회(산호세지역)의 주제를 “부흥과 성장”으로 정하고, 회의기간 동안의 모든 순서를 부흥과 성장의 주제에 맞추어 진행하기로 하다.

7. Task Force 3 차 모임 (2/2005, Fort Lee, NJ)

그동안 Task Force 에서 마련한 초안과 연대기관 대표 연석회의와 부흥과 성장을 위한 협의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종합/수렴하여 전국연합회 전국대회에 발표할 제 1 차 자료를 확정하다.

8.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대회 (4/2005, San Jose, CA)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에서 개최된 2006년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연합회 전국대회에서 그동안 Task Force 에서 준비한 내용을 주제 강연 형식으로 김정호, 이승우, 장학순 목사가 발표하고 질의와 응답의 시간을 갖다.

9. Task Force 4 차 모임 (5/2005, Greenland, NH)

전국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Task Force 와 전국연합회 임원, 그리고 동북부지역연합회 임원간의 확대 모임을 갖고, 위임된 사항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다.

10. Task Force 5 차 모임 (7/2005, Fort Lee, NJ)

전국연합회 임원과 동북부지역 연합회 임원들과 갖은 확대 모임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Task Force 팀이 종합하고, 이를 2006 년도에 있을 전국연합회 총회에 상정하기 전에 교단내 주요 한인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Task Force 에서 그동안 마련한 내용을 홍보하고, 보다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다.

11. 교단 지도자들과의 만남 (8/2005, Englewood, NJ)

연합감리교회 내 주요 한인 지도자(감독, 각 지역연합회 대표)들을 초청해 뉴저지주에서 모임을 갖고, Task Force 에서 준비한 내용을 발표한 후, 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다. 모임을 마치면서 Task Force 가 마련한 내용에 대한 한인연합감리교회 각 연대 기관 대표들과 중앙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다.

12. 연대기관대표자 연석회의 및 중앙위원회 (11/2005, Dallas, TX)

Task Force 에서 마련한 방안을 가지고 연대기관 대표자들과의 연석회의와 중앙위원회 위원들과의 모임을 텍사스 주 달라스에서 갖고 그동안 위원회에서 준비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13. 각 지역별 지도자와의 모임 (3/2006, Atlanta, GA)

그동안에 여러 단계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마련한 한인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Task Force 의 방안을 최종화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각 지역(Jurisdiction)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방안에 대한 홍보과 최종적 의견을 수렴하다.

연합감리교회 현황(성장/정체)과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부흥 성장 장학순 목사,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사무총장, 뉴잉글랜드연회 MA

연합감리교회라는 교단과 그 속에 있는 한인 교회와의 관계를, 두 가지로 비유 할 수 있겠다. '숲과 나무' 그리고 '선박과 승객'이, 바로 그것이다. 숲의 생태계가 변할 때 개체 나무가 영향을 받듯이, 나무의 변화에 의해서도 숲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또한 배에 타고 있는 승객이 배가 순항 할 때 함께 손조롭게 여행할 수 있으나, 배가 가라앉을 때는 함께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연합감리교회 교단 전체와 한인 교회는, 마치 이와 같이 상호불가분의 운명 공동체적 관계로 설명될 수 있겠다.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The Great Commission)을 수행할 때 그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이 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제도'를 만들고 그 안에서 활동한다. 즉 '제도'는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연합감리교회는 '선교'보다는 '제도적 장치'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과 재정을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자성의 소리가 들린다. 많은 연합감리교인들이 이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해결 방안은 고사하고, '과연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문제 정의에 대한 공통된 합의조차도 얻어내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연합감리교회 현황

2004년 상반기까지 연합감리교회 교인 수는 미국 내 840만 그리고 해외에 240만명 정도였다. 2004년 4월 총회 때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아이보리코스트'(Ivory Coast)의 감리교인 수 120만이 연합감리교회로 편입해 왔기에, 현재는 이보다 증가된 상태이다. 43,000여명의 목회자(은퇴교역자 포함)가, 연합감리교회 내 35,000개 정도에 이르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교인 수를 다각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먼저 미국 전체 인구 대비 연합감리교인 수의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자. 1890년부터 1965년 동안에는 미국인 15명 중 1명이 연합감리교회 교우였으나, 2000년 현재는 29명 중 1명만이 연합감리교회 교우이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미국 전체 인구는 세 배(300%)로 증가된 반면, 연합감리교인 수는 약 절반(50%)으로 감소되었다. 각 주별 인구 증가와 교인수의 증가/감소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현재 상황을 분석하건대 지역총회 별로 보면 중남부와 동남부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서부, 중북부, 그리고 동북부는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1960-2000	인구증가	교인증가/감소
TX+	118%	15%
GA+	108%	19%
FL+	222%	40%
IL	23%	-45%
NJ	38%	-40%
MA	23%	-48%
CA	116%	-42%
USA	56%	-22%

위의 수치는 교인 수를 기초한 것인데, 여기에 주일 출석율을 추가해서 고려해보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이전에는 평균 개체교회 교인 수의 약 70%가 주일날

교회에 출석했으나, 2000년대에는 약 30%정도만이 출석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 하는 교인수의 감소율은 통계보다 더 낮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감소율은 가속도가 붙어 현재 매년 약 4만 명 가량이 연합감리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더 우려할 만한 사실은 교단 전체 교회 중 일년 동안 단 한 명의 새 교인(Profession of faith)을 얻지 못하는 교회가 2000년 현재 전체 교회 중 40%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전체 연합감리교회의 지방(District) 600여 개 중 32개가 통폐합되었고, 이 기간 중 연회(Annual Conference) 숫자는 73개에서 63개로 줄었다. 10개의 연회가 통폐합되었다.

교단 관련 정체 이유와 해결 방안

'목회자 파송/임명 제도'(Appointment system)에서 정체 이유 중 하나를 찾을 수 있다.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가 되면 정년(만 70세)까지 전임으로 최소 사례를 보장받으며 사역할 수 있도록 장정에 명기되어 있다(정년/전임/최소사례보장제도). 본래 각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 제도는 도덕적이며 이상적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역기능이 현실 속에서 종종 나타난다. 효율적인 목회를 하지 못하는 상당한 수의 목회자들이 이 제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만을 무리하게 주장하기도 한다. 그들이 빈번하게 파송지를 옮겨 다니며 교회를 약화시키는 폐단이 발생하기도 한다. 소수 목사들의 경우에 해당하는 '적무태만'(Ineffectiveness - 비효율적 목회)도 연합감리교회 장정상 '기소할 수 있는 비위'(Chargeable Offense) 중 하나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로 제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고용의 안정성을 극대화한 목회자 노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목회자의 소명과 자격에 관한 심사 및 검증 과정을 철저하게 보강하여, 목회자가 되려는 지원자들부터 점검해 나가는 것이 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기존 목회자에 대한 연장 교육(지식과 영성)과 영성 수련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목회 기간 중 계속해서 어려움을 자초하는 분들에게, 전업을 권장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순회파송제도'(Itinerary System)에도 문제가 있다. 교회 내 문제가 생기면, 교회, 목회자, 그리고 감리사가 인내를 가지고 해결하기 보다, 목회자를 다른 곳으로 파송하여 무마하려는 경향이 있다. 관련 삼자가 함께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는 도피성 파송으로는 교회 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목회자의 문제를 다른 교회에 떠 안기게 할 수도 있다.

목회자 교체 시 과다 비용 소모도 한 이슈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목회자와 교회가 서로 적응하는 기간이 상당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단 기간에 빈번하게 목회자가 교체되어 시간과 노력이 허비되기도 한다. 또한 이 시기에 목회자의 리더십이 약화되기 쉬우며, 개체 교회와 연회(감독과 감리사회)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교인들 간에도 갈등이 생겨, 분열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연회 내 한인 목회자들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 효율적인 파송에 무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 한인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할 때, 파송제도와 초빙제도의 일관성 없는 혼합 적용으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교인들과 목회자 모두가 무엇이 파송의 바른 규칙과 절차인지(Rules of the game) 혼동하여 공정성의 시비를 자주 갖는 것을 보게 된다.

개체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과 특히 목회협조위원회 회원들이, '순회파송제도'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인 목회자 파송을 위해서는 연회 경계를 넘어선 지역총회 차원 혹은 전국 차원의 공식 파송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감리교인들 간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이다. 여러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이 있기에, 그로 인해 서로 대립되는 여러 그룹이 생기고, 이들간의 이해 관계로 인한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동성애(Homosexuality) 문제가 그 대표적 예이다. 그 외에 여러 신학적, 교리적, 그리고 사회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도 보수와 진보의 각기 다른 입장들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빠른 시일 내 다양성을 인정하며 서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는 것이 요구된다.

과중한 선교분담금도 문제가 된다. 현재 연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많은 연회가 개체 교회 전체 일년예산의 20-25%를 선교분담금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것으로 교단 차원의 중요한 사역을 하는 것은 알지만, 개체교회의 재정에 큰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다.

선교분담금 일부를 개체교회가 자율적으로 부흥 성장을 위해 활용하게 하면 어떨겠는가? 마치 대기업이 '연구 개발비'(R&D, Research & Development)를 늘리는 것처럼, 교회 교육 전담 디렉터나 혹은 '이그나이팅 미니스트리'(Igniting Ministry) 등 개체교회 내 사역을 위한 투자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교단과 개체교회와의 관계가 점점 더 소원해 지고 있는 것도 문제중 하나이다. 많은 개체교회가 연회나 교단과 친밀하게 지내거나 일체감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개체교회와 연회가 파트너쉽을 가지고 서로 더 밀접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나가는 말:

현재 우리의 상황은 과거의 산물이자 결과이다. 다가 올 미래는 또한 현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더 나은 미래의 결과를 원한다면, 지금 현재의 제도(시스템)와 신앙 자세를 함께 변화 개혁시켜야만 한다. 연합감리교회의 어느 시스템도 절대적인 것은 없고 특정한 결과의 산출을 위해 만들어진 일시적인 도구일 뿐이기 때문이다.

연합감리교회의 부흥과 재활성화는 분명 어려운 문제이다. 문제 해결을 단념하고 포기하거나(Abandon), 회피할 수도 있지만(Avoid),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Advocate) 더 좋다. 한인연합감리교회 목회자 및 전체 평신도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가르침에 의지하고, 서로 신뢰하며 협력해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독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나는 과연, 문제의 일부분인가 아니면 해결책의 일부분인가?"(Am I part of the problem or the solution?).

부흥하는 한인 교회들! 그들을 통해 생각하는 부흥을 위한 디딤돌

김정호 목사, 아틀란타한인교회 GA

1. 회중 운영 제도를 채택한 교회들이 대부분 부흥한다.

걸림돌: 한인연합감리교회는 감독 파송 제도인 연합감리교회에 소속된 소수민족 교회이다.

디딤돌: 한인 교회의 특수성을 존중하여, 개체교회에 목회자 청빙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담임목사의 영적 권위를 약화시키는 제도에 대한 적절한 수정이 필요하다. 구역회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일년에 한번 오는 감리사와 담임목사와의 관계가,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비추어지겠는가? 특히 영어가 불편한 목회자일 경우, 위의 질문을 더욱 심각하게 물어 보아야 한다.

2. 제도적으로 유연성(Flexibility)이 있고 신학적으로는 복음적인 교회들이 부흥한다.

걸림돌: 연합감리교회 제도 속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의 현실은 어떤가? 연합감리교회 각 연회에서 배출되는 목회자들이 한인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잘 갖추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

디딤돌: 한인 교회 부흥에 적합한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총회 또는 총회 차원에서 안수사역부(Board of Ordained Ministry)를 별도로 구성하고, 한인 목회지원자의 자격을 심사 할 수 있는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

3. 한 목회자가 장기 목회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걸림돌: 목회자와 교회 관계 이외에 많은 외부 변수에 의해, 한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기간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연합감리교회 사정이다.

디딤돌: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목회자의 최고 관심이 되는 문화가 필요하다. 감리교회는 야 전 사령관 보다 본부 작전 참모실에 너무 권력과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

4.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권한이 교단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보다, 개체교회 목회자 지도력에 의해 보장되는 교단의 교회들이 부흥한다.

걸림돌: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들은 "목회직" 자체를 교단 차원에서 보장받는다. 이 '철밥통' 제도로 인해 '비능률 목사'(Ineffective pastor)도 생존이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생존이 교회 부흥보다 우선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교단 문화와 목사들의 '권리 의식'이 문제이다.

디딤돌: '권리'보다는 '소명'을 회복해야 한다. '분배 정의'에 관심 갖는 목사들에서 '생산'에 관심 갖는 목사로 바뀌어야 한다. '잃은 영혼 구원'에 열정을 갖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5. 선교적 열정과 건강한 사회 참여가 있는 교회들이 부흥한다.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교회들은 부흥하지 못했다.

걸림돌: 한인연합감리교회는 대부분 교단 울타리에서만 활동한다. 그것도 연회 중심으로 움직임도 제도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한인 사회와 교계에 영향력이 약하다.

디딤돌: 선교분담금을 50%만 교단에 내고, 50%는 한인 교회들의 발전을 위해 쓰도록 교단이 배려해야 한다.

6. 부흥 성장의 모델을 공부한 목회자들에 의해 최근 개척된 교회들이 대부분 부흥한다.

걸림돌: 연합감리교회 목회자 평가 기준은 '교회 부흥'의 능력이 아니다. '생산'보다는 '자리 분배'에 큰 관심이 있는 문화가 전반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디딤돌: 부흥의 문화를 형성하자. 중형 교회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자. 대형교회 모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자.

7. 네임브랜드가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교회들과 연관된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다.

걸림돌: 한국의 대표적 감리교회들이 어두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감리교단이 장로교단에 비해 현저하게 약하기에, '감리교회'라는 네임브랜드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디딤돌: 한인연합감리교회의 품질 향상을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 우리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 진정한 연대협력제도(Connectional system)를 실현해야 한다.

8. 보편적으로 장로교인들은 교회 문제가 있으면 다른 장로교회로 가는 반면, 감리교인들은 다른 감리교회보다는 장로교회로 이전한다.

걸림돌: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의 정체성 부재와 미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의 이질적 문화가,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이유 중 하나이다.

디딤돌: 감리교회 자긍심 회복 운동을 위한 "전략대책본부"를 결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9. 요즘 부흥하는 한인교회들은 2-3년 안에 오백명 그리고 5년 내에 천명에서 이천명으로 급성장한다. 이민 초기의 대교회들은 낙후, 침체, 아니면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걸림돌: 성장 가능 지역이라 해도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와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사역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 파송을 통해 변화가 생기기 기대할 뿐, 능동적으로 부흥을 위한 발판과 활력을 만들기 어려운 구조이다.

디딤돌: 부흥하는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체질, 문화, 그리고 네임브랜드 등을 활용하여 교회를 세우도록 하자. 개척하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목회자를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로 도와가면서 가능성 있는 교회가 부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자.

10. 인구 성장 지역에 신속하게 들어가 자리를 확보하고 창조적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자유로운 제도 속에 있는 교회가 부흥한다.

걸림돌: 연합감리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고 신속하게 움직이기가 어렵다.

디딤돌: 불가능하면 가능한 제도를 우리 스스로 만들던가, 그것도 아니면 제도화된 교회를 개혁하여 원래 감리교회 신앙 운동의 정신을 회복하도록 하자.

한인 연합감리교회 부흥과 성장의 거침들과 디딤들

이승우 목사, 워싱턴감리교회 MD

I. 부흥과 성장의 거침들

1. 교회 내 요인

- 이민 초기에 교회가 유일한 한인 연대를 위한 매개체였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한인 사회 내 다양한 기관들이 출현하여 교회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감소되었다.
- 근래에 교회 갱신에 대한 비판이 일어남으로 인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사회 속에 증가되고 있다. 교회 갱신의 역기능 현상이다.
- 시대와 문화 변천의 흐름에 맞추지 못한 전도와 교회 홍보 방법이 교회에 대해 진부한 인식을 초래한다.

2. 교단 차원 요인

-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미주 진출로 인해 연합감리교회 내 한인 교회 개척이 둔화되었다. 기존 교회 중 문제가 발생하면, 기독교대한감리회로 소속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 타 교단에서는 한인 교회를 위한 독자적 기구와 조직을 인정하고 장려하는데 비해, 연합감리교회 내에는 그렇지 않은 분위기이다. 한인 교회를 위한 행정적 구속력을 지닌 구조가 부재함으로 인해, 개체교회의 자원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소모되는 경우가 있다.
- 한인 교회를 개척하는데 대단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타 교단에 소속된 한인 교회들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해진다.
- 교회 개척 시 지역적 안배를 지나치게 고려하기에, 한인 인구 밀집 지역에 집중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데 많은 규제를 받아왔다. 그로 인해 타 교단에 비해 수적인 열세를 맞게 되었다.
- '한인목회강화협의회'가 평등적 분배 원칙에 의해 재정 집행을 실행하기에, 집약적 교회 개척이나 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 차세대 지도력 개발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영어권이나 전환세대 지도자들에게는 많은 관심을 보여 왔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어 사용 목회를 위한 지도자 개발에는 미흡함을 보였다.
- 교단 내 한인 교회 성장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들이 부족하다.

3. 목회 지도력 요인

- 목사의 자의식이 소명의식(Calling Model)에서 전문직업인(Professional Model)으로 전환되면서 영혼구령에 대한 열정이 저하되었다.
- 목회자의 시간 관리 능력 부족으로 근로기준법에도 미달하는 시간을 사역을 위해 사용한다.
- 목회자 자신을 위한 권익신장과 신분보장에 대한 깊은 관심이 목회자의 소명 의식을 약화시킨다.
- 목회에 대한 신학적 입장이나 이해와, 실제 목회를 통해 이루려는 목표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
- 돌봄과 친절 본위의 목회를 요구하는 현실로 인해,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목회를 하고 있다.
- 획일적이고 유행적인 교회 성장 방법론을 기준으로 교회 성장 여부를 평가하며, 목회에 대한 불필요한 성공/패배 의식을 가지고 있다.

4. 신학적 요인

- 감리교 신학은 진보적이며 자유주의적이라는 이해가 교회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 이런 이해는 곧 감리교회는 비복음적 교단이라는 오해를 야기시키고 있다(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한 교단적 입장에 대한 오해).
- 교회의 규모적 성장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매우 부정적이다.

- 각 사역과 목회의 독특한 개별성은 배제한 채, 모든 사역과 목회에 대한 포용성(Inclusiveness)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II. 부흥과 성장의 디딤돌

1. 교회를 위한 대안

- 교인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려는(React) 교회에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장하는 교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 일반인들이 갖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해는 바로 교회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직시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말해야 한다. 우리가 누구인지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한다.
- 교회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전도에 힘써야 한다.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알려야 한다.
- 시대와 문화 변천에 따른 다양한 전도/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자료들을 개발해야 한다(예- 현재 교단에서 벌이고 있는 Igniting Ministry 를 최대한 이용하고 각 개체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도/홍보용품을 개발해야 한다).

2. 교단을 위한 대안

- 현재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선교 교회를 포함한 미자립 교회의 현황을 진단하고 현실적 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한 획일적 모델 제시를 지양하고, 개체교회 상황에 따라 다양한 교회 성장과 부흥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 규모별(대도시, 중소도시)
 - 유형별(학원촌, 이중문화, 영어 회중)
- 한인 인구 이동에 따라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 특히 한인 인구 밀집 지역에 개척을 권장하고 경쟁력을 갖춘 개척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1970년대까지 미주 내 도시별 대표적 교회가 감리교회였음을 상기하고, 지역적으로 대표성을 지녔으나 정체된 교회들을 의도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예- 보스톤, 뉴욕, 시카고, 상항 등).
- 교단 내 한인 교회를 위한 행정적 구속력을 지닌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차기 총회(2008년)에 '한인 연회'(또는 '선교 연회'나 '잠정 연회') 조직을 청원할 준비 작업을 한인목회강화협의회, 각 지역총회 별 한인선교구, 그리고 전국연합회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현 전국연합회의 정관을 수정 보완하여 타 교단의 한인 총회와 같은 자생적 구속력을 지닌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3. 목회 지도력을 위한 대안

-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목회자 소명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 목회자의 시간 관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근무 규정 가이드 라인을 개발하여 이를 계도해야 한다.
- 목회 사역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자신의 목회를 통해 이루려는 목표가 일치해야 한다.
- 한인 교회 목회를 위한 차세대 지도력을 시급하게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신학교 졸업 후 일정 기간 수련목회자로 일하게 해서 목회를 익히는 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 목회를 여러 유형별로 구분하고 장/단기 인턴 제도를 실시하여 골고루 경험해 보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평신도 지도자 발굴과 양육을 위해 의도적으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실시해야 한다(예: KOSTA). 개체교회 사역 분야 별로 평신도 사역자 과정을 개설하고, 평신도들로 하여금 이 과정을 이수하게 해서, 평신도 지도력이 교단 내 정치적 지도력이 아니라 개체교회 사역을 위한 지도력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4. 신학적 입장을 위한 대안

- 한 시대와 한 국가를 움직인 신앙운동으로서의 감리교회와 그 신학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사회, 윤리적 이슈들에 대한 연합감리교회의 신학적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어야 한다.
- 규모/지역/유형별 교회 성장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배경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